

# “새로운 첩보물 만들고 싶었죠”

### ‘헌트’로 감독 데뷔한 이정재 스파이 색출 안기부 혈투 그려 칸영화제 스크리닝 공식 초청

“영화 일을 오래 했지만 각본 쓰고 연출하는 건 굉장히 다른 일이지요. 많이 주저했죠. 그런데 좀 더 용기를 내봐야겠다는 마음으로 바뀌면서 작품에 더 몰입하게 됐습니다.”

배우 이정재가 5일 서울 성동구 메가박스 성수점에서 열린 영화 ‘헌트’ 제작보고회에서 감독에 도전하게 된 계기를 밝혔다.

오는 8월 10일 개봉하는 ‘헌트’는 조직에 숨어든 스파이 색출을 위한 안기부 요원들의 혈투를 그린 첩보·액션 영화다. 넷플릭스 오리지널 시리즈 ‘오징어 게임’으로 일약 글로벌 스타덤에 오른 이정재의 감독 데뷔작이다. 영화는 지난 5월 칸영화제 미드나이트 스크리닝 부문에 공식 초청돼 첫선을 보였다. “새로운 첩보물을 만들고 싶은 욕심이 가장 컸다”는 이정재는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 콘티 작업에도 무술 감독부터 CG 팀까지 모든 팀이 모여 회의를 함께 했다고 회상했다.



5일 오전 서울 성동구 메가박스 성수에서 열린 영화 ‘헌트’ 제작보고회에서 감독 겸 배우 이정재(왼쪽)와 정우성이 토론했고 있다. /연합뉴스

이정재는 연출·각본에 주연까지 맡았다. 그가 연기한 박병호는 안기부 해외팀 차장으로 작전 실패 이후 조직 내 스파이의 실체를 집요하게 파헤치는 인물이다.

그는 “연출과 연기를 같이 하다 보면 당연히 하나를 좀 놓칠 때도 있다”면서 “처음부터 고려했던 부분이기에 연기가 더 돋보여야 하는 부분에서는 연기에, 미장센이나 연출적 측면이 더 중요하다 생각할 때는 연출에 더 집중했다”고 말했다.

‘헌트’는 이정재와 정우성이 영화 ‘태양은 없다’(1999) 이후 23년 만에 호흡을 맞춘 작품으로도 기대를 모은다. 두 사람은 연에게 대표 ‘절친’으로 알려져 있다.

정우성은 출연 제의를 네 번 고사했다고 밝히며 “그동안 함께하고 싶은 마음도 있었지만 두려움과 조심스러움도 있었다”고 고백했다.

“거리를 두고 객관적으로 보려 많이 노력했습니다. 어느 시점에서는 이 양반(이정재)의 부단한

노력이 준비됐다 싶더라고요. ‘결과가 어떻게 되든 같이 의기투합하자’ 했죠. 깨지더라도, 어떤 결과가 오더라도 후회 없이 받아들여야겠다는 생각에 출연하게 됐습니다.”

결과물에 대해서는 “우리끼리 즐기는 현장, 우리끼리 즐기는 영화로 끝내지 않기 위해 고군분투했던 것들이 화면에 담기지 않았나 싶다”며 “부끄럽지 않게 노력한 만큼 나온 것 같다”고 만족감을 드러냈다.

정우성은 안기부 국내팀 차장 김경도 역을 맡았다. 박병호(이정재 분)와 서로를 간첩으로 의심하며 갈등을 형성하는 인물이다. 정우성은 날 선 듯한 긴장감을 유지하기 위해 현장에서 이정재와의 대화를 줄이려 노력했다고 했다.

이정재도 “현장에서 말수를 줄이며 감정을 유지하려 했던 우성 씨의 노력이 느껴졌다”면서 “태양은 없다”와는 정반대에 있는 캐릭터와 분위기가 이 작품의 또 다른 매력”이라고 맞장구를 쳤다. /연합뉴스

# 최용석 1인 판소리극 ‘달문, 한없이 좋은 사람’

### 9일 국립남도국악원

국립남도국악원은 오는 9일 오후 5시 토요일 상설 ‘국악이 좋다’ 무대를 선보인다.

이번 공연 주제는 ‘달문, 한없이 좋은 사람’으로 소리꾼 최용석(사진)이 드라마 ‘불멸의 이순신’과 영화 ‘조선 명탐정’의 원작자로 잘 알려진 김탁환이 쓴 역사소설 ‘이토록 고고한 연애’의 주인공 달문(達文)의 생애를 다룬 판소리 1인극이다.

최용석은 춤과 탈, 그림자 등 다양한 방법 통해 관객들에게 ‘좋은 사람이란 무엇인가?’, ‘좋은 예술인이란 무엇인가?’에 대한 메시지를 아니라 판소리와 연희의 본래 목적인 오락적 재미와 즐거움을 선사한다.

사회참여 예술인이라 수식어가 붙은 최용석은 전통 판소리를 기반으로 새로운 판소리 음악어법을 지닌 소리꾼이다.

그는 지난 20년 동안 꾸준히 창작 판소리와 소리극을 통해 동시대의 이야기를 담아내고자 꾸준한 활동을 하고 있다. 또 최근 국립부산국악원 ‘인어공주 황옥’ 연출로 참여해 연출로서도 두각을 보이고 있다.

이번 작품의 음악감독은 박승원, 음악반주에는 강선일과 송경근 등이 참여했다.

토요일 상설은 무료이며 진도 읍내와 국악원을 오



가는 셔틀버스를 무료로 운행한다. 12월까지 공연 스태프 쿠폰 이벤트를 진행, 관람객들에게 기념품을 제공한다. 문의 061-540-4042.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

# ‘불편한 편의점’ 북클럽 상반기 인기도서 1위

에스24의 전자책 플랫폼 ‘북클럽’의 상반기 최고 인기도서는 김호연 작가의 ‘불편한 편의점’이 선정됐다.

에스24는 북클럽 도서를 토대로 상반기 주목을 받은 도서를 발표했다. 그 결과 동네의 편의점을 무대로 오늘을 사는 이웃들의 이야기를 다룬 ‘불편한 편의점’이 1위를 차지했다.

이외 ‘달리구트 꿈 백화점 2’, ‘물고기는 존재하지 않는다’, ‘나는 왜 생각이 많을까?’ 등도 북클럽 인기차트 상위권에 올랐다.

분야별 인기도서 결과도 집계됐다. 인문, 역사, 예술, 자연과학 분야에서는 각각 ‘어른의 어휘력’, ‘거꾸로 읽는 세계사’, ‘방구석 미술관’, ‘나를

알고 싶을 때 뇌과학을 공부합니다’가 인기도서로 꼽혔다.

이밖에 에스24는 회원 참여 이벤트도 준비했다. 올해 하반기 에스24 북클럽을 통해 읽고 싶은 책을 이벤트 페이지에 댓글로 남기면 추천을 통해 경품을 선물한다. 이벤트는 오는 31일까지 진행되며 크레마S 1대(2명), 에스24 북클럽 90일 이용권(10명)을 경품으로 증정한다.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 가수 영탁, 데뷔 17년 만에 첫 정규 앨범 발매

가수 영탁(사진)이 4일 첫 정규 앨범을 공개한다고 소속사 밀라그로가 이날 밝혔다.

데뷔 17년 만에 첫 정규 앨범을 발매하는 영탁은 메인 프로듀서로서 수록곡 12곡 중에서 총 9곡의 작사, 작곡 편곡 등에 참여했다.

이번 앨범에는 강렬한 심포니 록부터 디스코 팝, R&B와 어쿠스틱 팝 등을 포함해 송영주 트리오와 협업한 재즈 발라드까지 다양한 장르의 곡을 담았다.

타이틀곡 ‘신사답게’(MMM)는 브라스 색션과 기타 리프가 조화를 이루는 펑크 댄스 장르의 곡으로, 영화 ‘킹스맨’을 연상시키는 연출과 고전적

인 신사의 이미지로 풀어냈다.

앨범 제목 중 영어 머리글자 ‘MMM’은 ‘킹스맨’의 대표적인 명대사인 ‘Manners Maketh Man’의 약어로 타이틀곡을 나타냄과 동시에 ‘Music Makes Me’를 상징한다.

앞서 영탁은 공식 SNS 채널을 통해 스के줄러 이미지, 트랙리스트 이미지, 스포일러 이미지, 콘셉트 포토, 콘셉트 필름, 뮤직비디오 티저 등을 공개한 바 있다.

영탁의 첫 정규 앨범 ‘MMM’은 이날 오후 6시 음원사이트를 통해 공개된다. /연합뉴스

# ‘예술날개 프로젝트’ 장애예술특성화사업 선정

### 광주문화재단, 6억 지원 받아

광주문화재단의 ‘예술날개 프로젝트’가 2022년 지역장애예술특성화지원사업에 선정됐다.

광주문화재단은 올해 6월부터 진행된 공모에 선정돼 2년간 국비 6억 원을 지원 받는다.

장애예술특성화지원사업은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한국장애문화예술원이 주관한다. 장애인의 문화예술 창작활성화 및 향유기회 확대에 초점을 맞춘 사업이다.

예술날개 프로젝트는 문화예술 현장의 구성원으로 공존하고 예술의 날개로 함께 날아오르자는

의미를 담고 있다. 장애인·비장애인 차별 없이 예술을 향유하고 차별 없는 창작 활동을 펼치자는 취지다.

올해 주요사업은 장애예술인 실태조사를 비롯해 장애예술인 창작활동 지원, 장애예술인 창작센터 ‘보듬’ 운영, 예술날개 네트워크 페스티벌 등이다.

황풍년 광주문화재단 대표이사는 “이번 공모사업 수주로 광주 7만 여명 장애인들의 문화향유 기회가 확대 되고 장애예술인의 창작 환경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귀할수록 전문 브랜드 비타민하우스

**45** 북위 45도 이상  
흑한에서

**15** 15년을 자란  
차가버섯을 엄선

**12** 12배 고농축으로  
영양을 꽉 채운

**시베리안 차가버섯**



Vitamin House  
구입문의 1588-8529

비타민하우스 전속모델 서경석